

온라인 수업 문제 및 개선 방안 안내

금일(3/16) 사상 초유의 전교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서버 확장, 클라우드를 사용한 저장 공간 확보, 트래픽 증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강신청 정정이 같은 시간에 겹치게 되면서,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던 접속량을 초과하여 금일 오전 9시부터 포털 로그인 등 학교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개강 첫날에 시스템 접속 등의 문제가 없었더라도, 강의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불편이 컸을 텐데, 추가로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진행하여 오후에는 접속이 다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트래픽 및 e-Class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장애 발생에 최대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e-Class를 통한 실시간 수업(Zoom) 참여가 어려웠던 문제도, 수강생이 직접 Zoom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교수님들께 안내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스템 문제 해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 현재, 수강신청 정정을 하는 경우 e-Class에 반영되기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정기간이 1주일로 짧아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신청을 정정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금번 수강정정기간을 기존의 3.21.(토) → 3.28.(토)로 1주 연장**하여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2) 또한, 수강정정 등 사유로 1,2주차 수업을 당장은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6.20.(금) 까지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수업 진행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3.16.

중앙대학교 교무처장